

강상규 방송대 교수가 쓴 『동아시아 역사학 선언』(에피스테메, 2021)

임계점에 이른 동아시아 전후체제, 상생의 해법은?

책의 부제는 ‘근대 동아시아에 나타난 역사적 전환들’이다. ‘역사학 선언’이라고 했지만, 사실은 한국과 중국, 일본의 오늘을 만든 근대사의 연결점을 찾고, 거기서부터 오늘날의 위기를 넘어설 수 있는 지혜를 모색하려는 저자의 도발적 문제 제기라고 하는 게 정확할 것 같다. 저자인 강상규 방송대 교수(일본학과)는 이렇게 말한다.

“동아시아 국가들은 역사의 진실보다는 자기중심적인 해석에 사로잡혀 서로를 맹목적으로 적대시한다. 이러한 문제를 살피려면 무엇보다 ‘단기적인 사고’를 넘어서야 한다고 생각해왔다. ‘동아시아 역사학 선언’이란 건조한 구조주의나 자국 중심, 일국 중심의 역사관을 넘어서야 한다는 절박한 문제의식에서 비롯됐다.”

방송대출판문화원 ‘에피스테메’가 지난 10월 말 내놓은 이 책은 근대 동아시아를 19세기 후반(아편전쟁에서 청일전쟁 직전까지), 20세기 전반(청일전쟁에서 아시아-태평양전쟁 종결까지), 20세기 후반(일본의 패전에서 냉전의 종언까지), 21세기 초반(탈냉전에서 현재까지)의 네 개 시기로 나누고, ‘다중거울’과 ‘추체형’을 통해 동아시아 근대사를 관통하는 시대정신을 짚었다. 근대적 주권국가로 패러다임이 급격하게 바뀌었던 동아시아 근대 전환기의 맥락을 새롭게 포착하려는 저자의 지적 구상은 70년 전 구축된 ‘동아시아 전후체제’의 한계와 위기에 대한 성찰에서 더욱 빛난다.

‘제국 일본의 50년 전쟁’이라는 프레임

저자의 접근과 방법론은 1장과 2장에 잘 나타나 있다. 동아시아 역사학을 위한 ‘다중거울’이라는 틀의 개념, 지금 여기에서 동아시아를 묻는 의미 등을 정리했는데, 저자의 방법론이 궁금한 독자라면 이 1, 2장을 꼼꼼히 살펴보는 게 좋다.

논지 전개와 관련해서는 4장과 5장이 특히 중요하다. 저자는 일본이 동아시아

에서 서구제국주의의 아류로 행세하면서 이웃 국가들을 식민지화하는 과정을 ‘제국 일본의 50년 전쟁’ 관점에서 살피고, 이후 일본이 패전한 뒤, 전쟁 책임을 문책당하지 않고 영토도 보존하면서 새로운 동아시아의 중심축으로 재등장하게 되는 과정을 ‘동아시아 전후체제’라는 틀 안에서 설명해내고 있다. 이 책이 동아시아 근대사의 단순 복기(復棋)가 아니라, 동아시아 전후체제의 ‘오늘’이 보여주는 역사적 불화, 다양한 갈등을 풀어낼 수 있는 ‘공동의 언어’를 향한 지적 실험임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저자가 동원한 다중거울 가운데 눈여겨볼 부분은 ‘제국 일본의 동아시아 50년 전쟁’이라는 프레임이다. 이 ‘거울’로 들여다보게 되면, 그동안 사각지대에 놓여 있어 포착될 수 없었던 측면들이 선명하게 나타난다. 저자는 세 가지를 강조한다.

첫째, 청·일전쟁 이후 연속적으로 진행된 제국 일본의 50년 궤적과 전체상, 한국을 비롯한 동아시아가 제국 일본의 억압 아래에 놓이게 되는 과정들을 연속적이고 입체적으로 조망할 수 있다.

둘째, 일본 제국주의가 ‘서양 제국주의에 저항하면서 아시아를 해방시킨다’는 논리로 전쟁을 확대해나가는 맥락과 함께 일본 제국주의와 서양 제국주의 상호간의 영향 관계를 포착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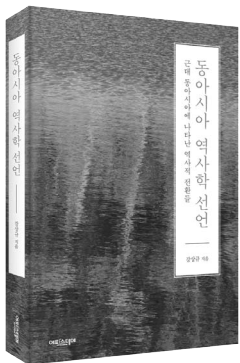
셋째, 일본의 패전과 항복 이후 한반도를 비롯한 동아시아 전체의 전후 맥락을 기존의 설명방식보다 연속적이면서도 계기적으로 이해할 수 있다.

특히 이 세 번째 이해가 중요한데, 저자는 이렇게 강조한다. “패전국 일본이 분할되지 않고 한반도가 분할 점령되는 점, 한반도에서 국제전이 전개되면서 ‘적대적 분단체제’가 고착되는 양상, 중국의 내전 종식 이후 양안관계라는 사실상 ‘두 개의 중국’이 형성된 것, 평화헌법과 미·일동맹에 바탕을 둔 일본의 전후체제



1951년 9월 8일,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Treaty of San Francisco)에 서명하는 일본 각료들
사진 출처= 위키피디아

이 책은 동아시아 근대사의 단순 복기(復棋)가 아니라, 동아시아 전후체제의 ‘오늘’이 보여주는 역사적 불화, 다양한 갈등을 풀어낼 수 있는 ‘공동의 언어’를 향한 지적 실험이라는 데 의미가 있다.



가 파편화된 퍼즐 조각으로 이해되는 것이 아니라 냉전의 세계사와 동아시아 역사의 맥락 위에서 새롭게 시야에 들어오게 될 것이다.”

“근대적 해법 뛰어넘는 발상 전환 필요”

저자가 말하는 ‘동아시아 전후체제’는 아이러니하게도 한국전쟁이 진행되던 1951년 9월 8일 미국 샌프란시스코 전쟁 기념 공연예술센터에서 미국을 비롯한 연합국과 일본이 맺은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에서 시작된다. 이 강화조약과 함께 눈여겨볼 대목은 바로 강화조약을 체결하던 날 함께 체결된 ‘미·일 안보조약’이다.

이 조약 역시 1952년 4월 28일 강화조약 비준일에 함께 비준됐다. 이 조약으로 일본은 자신의 영토를 미국의 군사기지로 제공하는 대신, 미국의 안보 우산 속으로 편입된다. 전후 일본의 놀라운 경제성장이란 것도 사실은 미국의 자유무역질서에 무임승차한 결과로 해석할 수 있는 근거도 여기에 있다.

70년 전 만들어졌던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과 이에 의해 구축된 국제 질서는

반공과 제국주의라는 낡은 패러다임에 갇혀 있다. 그렇게 만들어진 동아시아 체제는 당장은 작동하겠지만, 장기적으로는 역내의 변동을 담아낼 수 없을 것이라는 게 저자의 진단이다. 오늘날 ‘동아시아 전후체제’는 근래 세계사적 차원에서 등장한 ‘근대문명의 복합위기’와 함께 지금 격하게 요동치고 있다. 저자의 말대로 “동아시아의 미래가 20세기 전반의 불행한 유럽의 전철을 되밟을 것인지, 아니면 20세기 후반의 유럽처럼 협력의 동반자로 나아갈 것인지, 혹은 20세기 유럽과는 다른 고유한 제3의 길로 나아갈 것인지는” 동아시아 시민들의 인식과 선택에 달렸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그런 경우조차 평화적 해법 마련은 어느 국가의 일방적 주도나 자국 중심의 발상과 같은 ‘근대적 문제 해결 방식’으로는 어려울 것이다. 그래서 저자는 ‘유연하고 큰 그림을 담은 역사적 성찰’, ‘그동안의 근대적 해법을 뛰어넘는 발상의 전환과 상상력의 발휘’를 계속 주문한다. 책의 끝 에필로그에서 저자가 ‘가재의 탈피’라는 비유를 가져와 전환기를 살아가는 해법을 상상하는 대목도 흥미롭다.

저자는 독자들이 『동아시아 역사학 선언』을 읽기 쉽게 곳곳에 ‘노트’를 붙여 풍부한 이야기를 들려준다. 또한 20개의 질문(Q)을 던지고 이에 대해 답할 수 있도록 팁까지 배치했다. 독자들이 자신의 삶 속에서 가졌던 의문들을 책에 투사하면서 읽어주길 기대하는 저자는 이렇게 말했다. “일본은 어쩌서 전쟁 배상금을 물지 않았는지, 전쟁에 진 일본은 분할되지 않고 어쩌서 우리가 분할돼 했는지, 식민지가 분할된 사례는 어떻게 봐야 하는지 등 계속해서 질문을 던지면서, 오늘의 우리와 역사의 문제들이 연관되는 지점을 사고할 수 있기를 바란다.”

최익현 선임기자 bukhak@knou.ac.kr

입학권유

자랑스러운 동문 여러분!

여러분은 76만 여명의 졸업생을 배출하고, 10만 여명의 재학생들이 꿈을 향해 도전하고 있는 대한민국의 대표 국립 원격고등교육기관인 한국방송통신대학교의 자랑스러운 구성원입니다.

동문 여러분께서는 사회 각 분야에서 대한민국 발전의 중심이 되어 우리 대학의 위상을 한껏 드높이고 있습니다. 오늘날 가장 많은 학생과 졸업생으로 최대 인적 네트워크를 보유한 평생교육의 산실로 큰 발전을 이룩한 것은 방송대 동문들의 헌신적인 노력의 결과로 매우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급변하는 21세기 인공지능을 활용한 4차 산업혁명시대는 현대인들에게 끝없는 변화와 도전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또한 인생 100세 시대를 맞이하여 보다 다양하고 폭넓은 분야의 지식 습득에 대한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대 흐름 속에서 교육은 삶의 특정 시기에 한정된 학습이 아닌 전 생애에 걸쳐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기에 평생학습의 중요성이 그 어느 때 보다 커지고 있습니다.

내년이면 개교 50주년을 맞이하는 방송대는 다양한 전공분야와 최첨단 원격교육 시스템을 통해 배움을 원하는 학습자들에게 맞춤형 학습 환경을 제공하고 있으며 국가장학금 뿐만 아니라 다양한 교내·외 장학금 제도를 통해 고등교육 기회 확대와 교육 복지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2022년 1월 5일까지 2022학년도 1학기 신·편입생을 모집합니다. 이에 여러분과 같이 자기 개발과 배움의 꿈을 이어가고자 하는 주변의 예비지원자에게 방송대 입학 권유하여 주십시오. 또 다른 성공 사례를 제공하는 보람과 자부심으로 학교 발전에 동참하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방송대 동문 여러분의 적극적인 학교 사랑과 관심 속에서 더욱 빛나는 국립 한국방송통신대학교 가 될 것입니다.

국립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총장

류수호